

도쿄 올림픽 식재료 공급에 대한 우려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맞이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의 기업들은 올림픽을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농업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회기간 중 일본산 식재료 활용 및 일본음식 제공으로 일본 식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선수촌에 제공되는 요리에 일본산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림픽에 사용되는 식재료 조달기준

올림픽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엄격한 국제기준인 「GAP」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선수를 위해, 맛있게, 건강하게, 친환경적'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농축산물의 생산관리, 가공, 유통관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올림픽 식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도쿄 올림픽도 GAP 인증이 채택되어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농산물이 사용될 예정이다.

GAP인증이란

GAP은 Good(적절한) Agricultural(농업의) Practices(실천)의 약자로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단계까지 농업 환경(토양·수질 등)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농약·세균·중금속 등)을 중점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농업생산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향한 노력 및 그 기준을 의미한다. 모내기나 수확 등의 작업뿐 아니라 토양이나 물 등

의 생산 환경도 좋은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 포인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생산 공정 전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제3자가 확인·평가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GAP 인증이다.

현재 유럽GAP, 일본GAP, 한국GAP 등 국가권역별로 GAP을 두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GAP(J-GAP)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GAP의 국제적 표준으로는 현재 120개국 이상에서 유럽계 Global GAP(G-GAP)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J-GAP, G-GAP 등을 취득한 식품만이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본 GAP 취득 생산자 1%에도 못 미쳐

현재 GAP 인증을 취득한 일본 농가 수는 압도적으로 적다. 일본 농림수산물성 조사에 따르면 현재 GAP 인증을 취득한 농가 수는 632개체이며 이 숫자는 전체 농가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대로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면 식자재 부족으로 GAP 인증을 취득한 해외 식자재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J-GAP은 서류심사, 현지 심사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으며 취득 이후에도 매년 심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농가가 많았으며 J-GAP 말고도 JAS(일본농림규격)인증 취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성은 일본계 GAP인 J-GAP의 취득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으며 현재 J-GAP을 J-GAP BASIC으로 삼아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해 J-GAP ADVANCE를 ASIA-GAP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식자재 조달 기준 |

JGAP	ASIAGAP	GLOBALGAP(GGAP)
운영주체	일반재단법인 일본 GAP 협회	Food PLUS GmbH (독일)
국내외 마켓	일부 대규모 슈퍼마켓 등이 취득을 요구	일부 대규모 슈퍼마켓 등이 취득을 요구, 특히 유럽에 보급됨

국내에서도 일본 GAP 인증을 적극 활용해야

GAP중에서도 제도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일본GAP(J-GAP)을 취득했다는 것은 식품관리 및 생산 재배의 전반적인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므로 소비자들에게 안전·안심 식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토양, 수질, 농약, 비료를 시작으로 수확, 선별, 출하 및 위생기준 등 200여 가지의 매뉴얼을 꼼꼼하게 검사하는 일본GAP 인증제도를 국내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농산물도 인삼, 수박을 시작으로 K-FOOD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면 이후에도 다른 농산물로의 인증 확대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및 해외 농산물 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본 GAP (J-GAP) 마크 |



| J-GAP 인증을 받은 한국 농산물 |

• 놀외인삼



• 논산수박



인증 농장명	품목	인증대상섹터	상품특징
놀외인삼 ノルメインサム (営農組合法人)	고려 인삼	청과물 (재배·수확 ·취급)	인삼부문 최초 GAP 인증 취득, 8개국 직접 수 출 중
논산 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 (論山スイカ研究 会営農組合法人)	수박	청과물 (재배·수확 ·취급)	수박부문 최초 JGAP인 증 취득, 12브릭스 이상의 고당도를 자랑함

GAP 인증 절차



- 정리정돈부터 생산이력정보 기록용 경영기록장 등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

- 농업생산과정 중 문제점 발견 시
①필요한 대책 강구
②대책 실행
③개선 내용에 대해 기록 및 점검
④지속적인 개선

- 심사회사(지정 민간기업)에 신청
- 심사원에게 생산 공정 전체 평가 받기
- 지적사항 개선

- 더 나은 농업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인증 취득까지는 평균 6개월~1년 정도 소요 ◆ 인증 유효기간은 통상 1년간 ◆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일정비용 소요

Key Poin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 인증취득 지원 중

올림픽에 안전성 높은 식재료를 제공한다면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의 성공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식품 수출의 홍보 전략으로서 장기적인 수출 판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매년 aT에서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 인증취득(Global GAP, 해외 유기농 인증, 특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촉진 및 비관세 장벽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